# 古代書板小考

朴 昌 元
(原子力研究所圖書館)

## 序

오늘 날 우리는 圖書를 通하여 古代人들의 思想과 生活을 어느 程度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點에서 圖書는 世界의 記錄이라 할 수 있다. 人類의 思想, 行動, 經驗 및 知的活動에 關한 모든 記錄은 이 조그마한 圖書에 담겨 永久히 保存되어 있다. 곧 人類共有의 精神的財産이 담겨있는 것이 圖書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貴重한 精神的인 遺産을 人類의 先祖들은 어떠한 方法으로 史實을 記錄하였는가를 여기서 簡單히 생각하기로 하겠다.

圖書의 形態는 무슨 材料를 使用하였는가에 따라 그 形態가 다르다. 아마 人類가 그들의 생각과 日常事를 記錄 해 두려는 最初의 努力은 단단한 器具로 岩石의 表面을 파서 記錄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永久히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點에서 그들은 墓碑나 國家法典과 같은 公文 또는 記錄碑 등의 彫刻材料로 岩石이나 金屬物을 使用하였다.

그 例로 이집트(Egypt)의 센드石文(Send Inscription) 모세의 十誡, 로젯타石文(Rosetta stone), 石鼓文 또는 石經 등의 遺物이 古代人類들이 生活한 地方에서 發見되고 있다는 點이다.

印度에서는 銘記, 聖名, 呪文 또는 經典의 節句 등을 碧玉, 紫水晶, 硬玉 등에 刻하거나 或은 좀 덜 값진 珊瑚에 刻하였다. 金屬에 刻한 일도 있었으나 널리 行해지지는 않았다. 또 鉛의 小板이 書寫用으로 古代人에 의해 使用되었다는 記錄이 있으며 유럽과 極東地方에서는 「符」의 文句는 銀, 靑銅, 眞鍮 또는 鉛의 小板에 彫刻하였으며 文字는 때때로 金銀으로 象眠(象嵌)되어있다.

돌이나 金屬 등에 記錄하면 保存面에 있어서는 永久性이 있으나 첫째 彫刻하기가 어렵고 둘째 移動하거나 휴대한다는 일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었다. 그러나 社會의 文化가 점점 進步하고 또 보다 많은 記錄을 必要로하는 時代에 들어 서면서 人類는 보다 便利한 書寫의 材料를 쓰기 始作하였는데 이 때부터 圖書의 形態가 갖추어지기 始作한 것이다.

## 瓦 書 (Clay tablet)

먼 곳에 있는 것 보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豊富하게 있는 것을 利用하려는 것은 人間 本然의 性品이다. 그것은 建築의 歷史를 더듬어 보아도 各民族은 定住한 그 地方의 自然物을 利用하고 있었음을 보아 알 수 있듯시 圖書의 材料를 利用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文化의 起源에 있어서 이집트와 그 앞 뒤를 다투는 곳은 칼데아(Chaldea) 地方인데 창세기 11章에 보면 바벨 塔을 쌓을 때 그들은 벽돌을 불에 구어서 使用하였다는 記錄이 있는데 그들은 이 벽돌로 마을과 塔을 세웠다. 粘土가 풍부한 Chaldea 地方에서는 圖書의 材料로도 역시 粘土로 만든 terracotta를 使用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瓦板이라 부르고 있다. 瓦板이 처음 使用된 年代는 分明치 않으나 대개 紀元前 4千年代로 보고 있다. 이 說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紀元前 3千8百年 Sargon 治世의 日附가 있는 瓦書가 現在까지 알려져 있는 最古의 것인데 그 以前에도 使用하였으리라는 것을 否定할 根據는 없다. 이 때부터 3千餘年間 이 瓦書의 形式이 存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40년부터 1847년에 걸쳐 Sir Henry Layard가 아시리아(Assyria)의 舊都 니네베(Nineveh)의 遺跡을 찾아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王의 宮趾를 發掘하여 數萬의 瓦書를 찾아 내어 그것을 故國에 갖고 가서 大英博物館에 寄贈하였다. 그런데 이 貴重한 出土品은 數十年間 먼지에 쌓인채 그대로 保管되어 있었는데 George Smith가 여러 해 이를 取扱하는 동안 瓦書에 새겨 있는 楔形文字의 解讀方法을 硏究해 볼것에 着眼, 오랜 苦生끝에 드디어 이를 完讀하는데 成功하여 有明한 아시리아學者가 되어, 그 自身도 그 곳에가 1萬餘의 瓦書를 蒐集하였다. 이 硏究의 功果는 바빌로니아(Babylonia) 및 아시리아의 歷史를 硏究하는데 새로운 光明을 던져 주게 됨으로써 이를 실마리로하여 系統的인 發掘作業이 많은 學者들에 依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瓦書를 判讀한 結果 여러가지의 記錄이 있었는데 니네베에서 얻은 出土品에서는 「길가메스의 敍事詩」라고 題한 12卷 짜리의 長篇이 있었다.

그 原作은 紀元前 數千年前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紀元前 7世紀頃에 文學을 극히 즐겨한 아시리아末期의 帝王인 아슈르바니팔王이 謄寫시켜 그 謄本을 다른 記錄과 함께 有名한 니네베의 圖書館에 收藏하여 두었던것으로 判明되었다.

瓦書의 크기는 一定하지 않으나 거의가 長方形의 平板모양으로 된 것인데 兩面에 文字가 새겨있다.

Layard가 最初로 發見한 것 가운데에는 大小의 크기가 같지 않고 제일 큰 것은 扁平한 것으로 세로 9吋半, 작은 것은 稍凸形의 平板으로 1吋도 되지 않는 文字가 겨우 1, 2行에 불과한 것이었다. 文字의 形態는 判明이되나 그 中에는 擴大鏡이 아니면 읽을 수 없을 程度의 작은 글字가 있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Lawrence 敎授의 報告에 依하면 5行 또는 6行의 文字가 不過 1吋의 面에 쓰여 있는것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事實을 勘案하여 어느 學者는 瓦書의 微細한 文字는 틀림없이 擴大鏡을 利用하여 썼을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現在 大英博物館에 保管되어있는 水晶製의 擴大鏡은 上記의 瓦書와 함께 니네베 圖書館遺跡에서 發見된 것으로 보아 一理가 있는 主張이라 하겠다.

文字의 모양이 楔形으로 된 것은 부드러운 粘土에 둥근 맛이 있는 文字를 쓰기는 어려웠기때문에 楔形의 文字를 使用한 까닭이며, 文字의 記載가 끝나면 이를 불로 굽거나 太陽熱로 말렸다. 그런데 書寫하는데 있어서 작은 瓦書는 別로 힘드리지 않고 앞 뒷 面에 文字를 쓸 수가 있으나 大形의 瓦書를 뒤 엎어 그 裏面에 文字를 다시 쓰려면 먼저 써 놓을 前面의 文字가 粘土板의 무게에 눌려 그 모양이 뭉그러짐으로 그들은 行間에 작은 못을 여러 자루 꼽아서 粘土板을 받치게 하여, 文字가 뭉그러지는 것을 免케 하였는데 그 痕跡이 現存하는 瓦書의 行間에 작은 구멍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瓦書가 最初에 使用되기는 契約上의 證書로서였다. 書契가 東西洋에 있어서 圖書의 起源을 이루고 있음은 同一하다. 契約의 證書는 後日 或時 契約事項에 紛爭이 생길 경우에 解決하는데 證據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오랜 時日을 經過하며 場所를 여러번 옮기는 사이에 文字에 改竄가 加해진다면 애써 만든 書契도 쓸모가 없어지기때문에 奴隸의 賣買나 金錢의 貸借 또는 其他의 契約에 關係되는 文書는 瓦函이라 부르는 粘土製의 外函에 넣어서 保管시켰다. 그리고 函의 外面에는 本文과 같은 內容이 記錄되어 外函을 깨지 않고도 內容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그것이 重要한 書類일때는 包裝이 三重, 四重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는 이 外函의 記錄으로 用務를이룰 수 있으나, 事件이 복잡하여 解決이 쉽게 나지 않을 때에는 關係者들의 立會아래 外函을 뜯고 本文을 들어 내어 檢證하였다 한다.

## 貝 葉

東洋에서도 特히 古代印度에서는 貝多羅葉을 적당한 기리로 잘라 書寫用材料로 使用하였다. 樹皮는 古代人들의 書寫材의 하나로 첫째 얻기 쉽고, 부드럽고 또 保存하기가 쉬워 많이 利用되었다.

貝多羅(Patra)는 樹葉이라는 뜻이나 古來 印度에서 一般的으로 常用된 것은 多羅樹葉(tala-patra)였다. 樹葉에 文字를 쓸 때에는 每葉의 긴 邊을 따라 오른 쪽으로 써 가서 右端에 닿으면 다시 다음 行에 옮겨 써 갔는데 가볍게 文字를 긁는 形式으로 쓴 다음에 먹물을 부어 글씨가 눈에 띄도록 하였다.

風土가 다르기때문에 Chaldea 地方의 瓦書와는 그 使用된 材料가 다르지만 各己 天然物을 利用하였다는 點과 또 單葉에 書寫하였다는 點으로 보아 貝葉도 그 形式上에서는 書板의 하나로 보겠다. 그런데 낱장으로 놔두면 흩어질 염려가 생김으로 한 쪽 귀퉁이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合綴시킴으로 散佚을 막았으며 또 圖書의 形態를 이루는 結果도 되었다. 이것이 貝葉이다. 極東地方에 있어서의 圖書의 形態는 特別한 根本的인 改變이 없이 近世까지 傳授되어 왔다.

貝葉은 上述한 長點外에 操作하기가 어렵고 또 자주 넘기면 綴目한 곳이 傷하기 쉽기때문에 貝葉보다 훨씬 질긴 材料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金銀板 또는 鍍金한 銅板 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文字는 彫刻 또는 穿孔으로 表示되어있다. 어떤 것은 象牙의 엷은 板에 金箔으로 쓴 것도 있고 또 漆塗의 板面에 象眠한 것도 있다. 表紙로 使用한 上下 2枚는 더 두껍고 질긴것으로 되어 있으며 巧緻한 裝飾이 되어있다고 한다. 個中에는 精美한 彫刻과 그림이 있는것도 있다.

古代 中國에서 使用한 方策도 印度의 貝葉처럼 書板의 形式을 갖춘것으로 이것은 나무, 대(竹) 및 金玉에 記錄한 세 가지가 있다.

나무에 쓴 것을 版이라고하며 또 方이라고도 한다. 周禮에

「小宰聽閭里以版圖司書掌邦人之版土地之圖司會掌版圖之貳內宰掌書圖之法以治王內之政令大胥掌學士之版司士掌群臣之版司民掌登萬民之數自生齒以上皆書方版」이란 記事가 곧 版의 例이다.

대에 쓴 것은 이를 簡 또는 策이라고도 한다. 左傳 襄公25年傳에

「南史氏執簡而往」라는 글이 있고, 詩經小雅出車篇에

「畏此簡書」라고 있으며 傳에 「簡書戎命也鄰國有急以簡書相告」라고 있는것은 다 簡의 例이다. 그런데 簡을 또 牒, 札, 畢, 籤이라고도 하는데 여러개의 簡을 連編한 것을 策이라 한다.

金과 玉을 使用한 것은 金策 또는 玉版이라 부른다. 逸周書大聚解에 「召昆吾冶而銘之金版」이라 하였고 張衡西京賦에는 金策의 文字가 보이며 素問에는 「著之玉版」의 글이 있다. 그런데 金策이나 玉版은 大典이나 聖賢의 大訓外에는 잘 使用하지 않았으며 대개 대(竹)와 나무를 常用하였다.

### 蠟 版

1875年 폼페이遺跡發掘時에 작은 蠟板 곧 푸기라리아(Pugillaria)가 한곳에 많이 모여있는 것이 發見되었다. 이 蠟板은 얼핏 보면 日帝時에 국민학교 어린이가 사용한 石盤과 비슷한 것이다. 이것은 長方形 모양의 板의 一面에 네 모서리의 廓만을 남기고 안을 움푹 들어가게 凹한 곳에 黑蠟을 平面과 같게 가득 채운것으로 이 蠟面에 끝이 뾰족한 金屬製의 스타일러스(Stylus) 文字를 쓴 것이다. 대개 쇠고랑이나 가죽띠로 2枚의 蠟板을 綴合한 것이 普通인데 이것을 「지프치카」라고 불렀다.

羅典語 diptycha는 희랍어 치붓가($\delta\iota\pi\tau\upsilon\chi\alpha$)에서 나온 말로 「지브치카」는 二重의 意味를 갖는 di와 접어 쌓는 뜻을 갖는 ptysso와 合쳐 만든 單語다. 英語의 diptychs는 「지브치카」에서 由來하였음은 말 할 必要도 없다. 單語의 成立이 뜻하듯 2枚의 蠟板을 繫合한 것이 本來의 形態인데 때에 따라서는 3枚로 된것도 있으며 그 以上의 枚數도 있다.

蠟刻은 永久保存에 매우 適合한 것으로 폼페이에서 出土된 것 가운데에는 紀元 55年의 日附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Umbricia Januaria에 對한 支拂의 記錄으로 現存하는 羅典寫本中 最古의 것이다. 이와같은 「지프치카」는 널리 使用된 모양인데 에집트와 英國에서도 發見되었는데 이는 로마人들의 征服時의 遺物로 보고 있다. 폼페이와 其他 各地方에서 나온 木製지프치카는 거의가 無飾이나 後時代의 特히 第2世紀부터 第7世紀에 이루기까지의 로마에서는 이 지프치카가 重要한 것이 되면서 象牙로 만들어 精巧한 彫刻을 加하였다. 現存하는 지프치카 中에 가장 優秀한 一片이 大英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데 그것은 3世紀頃의 作品으로 球와 十字架와 긴 지팽이를 들고 있는 大天使(arch angel)의 全身像을 彫刻한 것이다. 그런데 異狀한 點은 16吋×6吋이나 되는 類例가 없는 大形으로 이 程度의 象牙가 얻어질 수 없으리라는 點에서 아마도 巨象(mammoth)의 牙일것으로 생각된다.

오랫동안 로마의 權限은 執政官에게 賦與되어 있었으므로 이 執政官의 地位는 實로 萬人들의 羨望의 標的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랑스러운 地位에 오른 사람은 이 事實을 文武百官에게 被露하고 싶어짐은 當然한 일로, 그들은 이때 象牙의 지프치카에 被露의 글을 써서 보냈다. 또 그들은 在職中에 일어 난 事件도 이 지프치카를 使用하여 通牒하였다고 한다. 執政官들이 使用한 지프치카는 木製의 지프치카보다 큰 것으로 象牙彫의 지프치카는 대개 6吋에서 7吋의 크기로 되어 있다. 아름답게 彫刻된 象牙의 지프치카를 贈與받는 일은 크게 名譽스런 일로 생각되었기때문에 第4世紀頃의 皇帝 테오도시아스는 勅令을 發하여 執政官 以外의 사람은 지프치카를 發行치 못하게 하였다.

執政官發行의 지프치카 以外에 또 敎會의 것이 있다. 敎會지프치카의 大部分은 殉敎者 또는 그 지프치카를 所藏하는 特殊敎會의 保護者의 姓名錄이다.

지프치카는 金屬製의 고리나 가죽끈으로 板에 구멍을 뚫어서 背部에서 매듭을 짓게 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이러한 方法은 近代式圖書의 原型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기라리아는 法律上의 文書에도 使用되었다. 文書의 內容을 함부로 볼 수 없도록하고 또 毁損을 막을 수 있기때문이었다. 例를 들면 遺言狀같은 것은 끈으로 튼튼히 묶어서 證人이 封印케 하였다. 이런 類의 다브렛드는 오래동안 使用되어 왔는데 12世紀中葉에는 通信에도 使用되었다는 記錄이 있으며 16世紀에 와서는 그 使用이 끊어져 버린것으로 調査되고 있다.


<參考文獻>

| | |
|---|---|
| 木寺淸一 等著 | 本の歷史と 使い方 |
| 庄司淺水 著 | 本の文化史 |
| 庄司淺水 著 | 圖書の歷史 |
| 田中敬 著 | 圖書學槪論 |
| Agnes Allen | The story of the book. |


☆ ☆ ☆